

# KIA 강릉고 투수 최지민 1라운드 지명

윤도현·강병우·김찬민 등  
신인 10명 프로 유니폼  
진갑용 아들 진승현 롯데로  
전체 1순위 특급 우완 박준영

KIA 타이거즈가 13일 서울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언택트'로 열린 2022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0명을 지명, 1차 지명 김도영(내야수·동성고)를 포함해 11명의 2022년 신인을 확정했다.

KIA는 1라운드에서 투수 최지민(강릉고)을 호명했다.

186cm 94kg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최지민은 지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이拔군인 좌완 투수로, 올해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강릉고를 우승으로 이끌며 최우수선수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고 시속 143km의 공을 던지는 최지민은

입단 후 체계적 지도를 받는다면 구속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구속 향상이 이뤄지면 선발 자원으로 손색없다는 평가다.

KIA는 2라운드에서 내야수 윤도현(광주제일고)을 뽑았고 3·4라운드는 투수 강병우(배명고)와 김찬민(전주고)을 지명했다.

181cm 82kg의 신체 조건을 지닌 윤도현은 중학교 시절부터 KIA 1차 지명 선수인 김도영과 지역 라이벌 구도를 이뤘던 유격수다. 강한 타구를 생산하는 능력과 견실한 수비력을 갖췄다.

강병우는 최고 시속 143km의 공을 던지는 좌완 투수로, 볼넷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찬민은 우완 사이드암으로 투구 밸런스가 안정적이라는 평이며, 공 끝 움직임이 좋아 땅볼 유도에 능하다는 평가다.

KIA는 이어 이성주(포수·경기고), 백도열(외야수·연세대), 황동하(투수·인상고), 한승연(외야수·전주고), 신명승(포수·진흥

고), 손진규(투수·송원대)를 선택했다.

이성주는 강한 어깨와 파워, 유연성을 모두 갖춘 포수로 중장거리형 타자로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백도열은 우투좌타 외야수로 손목 힘이 강하고, 타격 센스와 파워를 갖췄다. 황동하는 인상고 에이스 투수로 투구 밸런스가 좋고, 훈련 집중력이 뛰어나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한승연은 우타 중장거리형 외야수로, 신체 밸런스와 전반적인 운동 능력이 뛰어나 성장 잠재력이 크다. 진흥고 포수 신명승은 시속 150km 이상의 빠른 공을 안정적으로 포구하는 능력과 타격 센스가 뛰어나 입단 뒤 빠른 발전이 기대된다. 송원대 마무리 투수인 손진규는 구위를 앞세워 타자를 상대하는 유형으로, 볼넷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지명을 마친 KIA 타이거즈 권운민 스카우트 워킹그룹장은 "좌완 투수와 우타 중장거리형 야수들을 지명하는데 주력했으며, 원했던

선수들을 모두 뽑게 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는 한화 이글스의 지명을 받은 고교 특급 우완 투수 박준영(세광고)이 차지했다.

드래프트에 참여한 1,006명의 선수 중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린 박준영은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다. 2021시즌 16경기에서 5승 1패 평균자책점 1.93을 기록했다.

2라운드에서는 '야구인 2세' 프로 선수가 탄생해 눈길을 끌었다. 진갑용 KIA 배터리 코치의 아들인 투수 진승현(경북고)은 2라운드 14순위로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됐다.

롯데는 트레이드로 확보한 kt의 3라운드 지명권을 활용해 강릉영동대 김철기 감독의 아들인 김제민(강릉고 내야수)을 지명했고, 배구 스타 하중화의 아들인 하혜성(덕수고 투수)도 5라운드에서 선택했다. /최진화 기자



최지민



공은 어디에 13일 경북 상주체육관에서 열린 2021 MG 새마을금고 KBL컵대회 원주 DB와 상무 경기. DB 김중규(가운데)와 상무 천기범이 공중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DB가 86-84로 이겼다. /연합뉴스

## 광주시체육회 생활체육 쌍방향 지도활동

### 비대면 플랫폼 활용 호평

광주시체육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움츠러있는 시민들을 위해 실시간 쌍방향 지도활동에 나섰다.

13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구체육회와 함께 실시간 쌍방향 지도활동을 월 2회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유튜브 영상 제작·배포해온 시체육회는 비대면 지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육회별로 다양한 종목과 주제로 80여 개의 동영상을 제작, 홈페이지 및 각종 SNS를 통한 제공에 나섰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신

체활동이 부족해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실시간·쌍방향 지도활동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Zoom·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활용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어 다세대·다계층 시민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진화 기자

## 조코비치 '캘린더 그랜드슬램' 달성 좌절

메드베데프에 0-3 발목  
내년 기회 있을지 불투명  
메이저 대회 21승도 다음 기약

52년 만에 대기록 탄생으로 기대를 모았던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의 테니스 남자 단식 캘린더 그랜드슬램 도전이 좌절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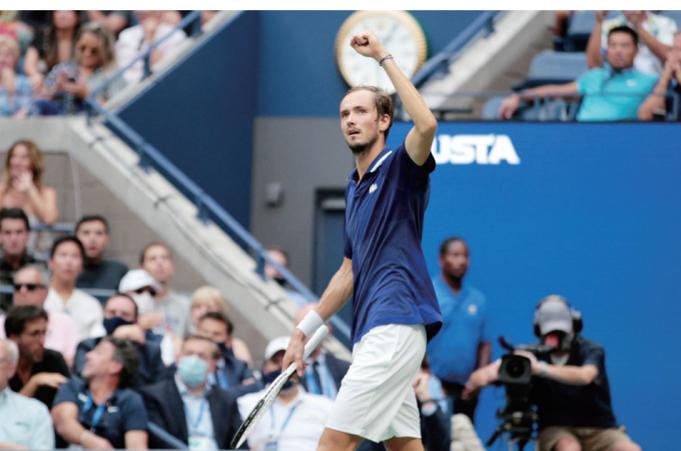
조코비치는 13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 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5,750만달러·약 673억원)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다닐 메드베데프(2위·러시아)에게 2시간 15분 만에 0-3(4-6 4-6 4-6)으로 졌다.

올해 앞서 열린 호주오픈, 프랑스오픈, 윌명턴을 휩쓸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할 경우 1969년 로드 레이버(호주) 이후 52년 만에 한 해에 4대 메이저 대회를 석권하는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었던 조코비치는 마지막 관문인 US 오픈을 통과하지 못했다.

1987년생으로 내년엔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조코비치가 다시 캘린더 그랜드슬램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또 조코비치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했다면 남자 단식 최초로 메이저 대회 21회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2022년을 기약하게 됐다.

테니스 남자 단식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은 조코비치와 라파엘 나달(5위·스페인), 로저 페더러(9위·스위스)가 함께 보유한 20회다.

반면 메드베데프는 2019년 US 오픈,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세 번째로 진출한 메이저 대회 단식 결승에서 드디어 정상에 정복, 생애 첫 메이저 왕좌에 등극했다. 특히 올해 호주오픈 결승에서 조코비치에게 당한 0-3(5-7 2-



메드베데프가 1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 오픈 남자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6-2) 패배를 설욕했다. 우승 상금은 250만 달러(약 29억2,500만원)다.

현역 20대 나이 선수의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우승은 지난해 US 오픈 도미니크 팀(6위·오스트리아) 이후 이번 메드베데프가 두 번째다.

조코비치는 이날 결승을 앞두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며 총력전을 예고했으나 경기 초반부터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1세트 자신의 첫 서브 게임부터 브레이크를 허용, 0-2로 끌려간 조코비치는 1세트 내내 한 번의 브레이크 포인트도 잡지 못하고 4-6으로 1세트를 내줬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번 대회 3회전부터 4장까지 네 경기 연속 1세트를 내주고 역전승한 조코비치의 관록에 대한 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2세트 메드베데프의 첫 서브 게임에서 0-40으로 트리플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았다가 메드베데프의 포핸드 위너, 서브에이스, 조코비치의 실책으로 브레이크 기회를 날리면서 경기장 분위기가 메드베데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결국 바로 다음 자신의 서브 게임을 빼앗긴 조코비치는 2세트에서 잡았던 5번의 브레이크 기회를 모두 놓치고 또 4-6으로 2세트도 내줬다.

3세트에서는 메드베데프가 게임스코어 4-0까지 리드를 잡으며 코트에 몰린 조코비치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웠다.

서브 에이스 수에서 메드베데프가 16-6으로 우위를 보였고, 공격 성공 횟수 38-27, 실책 31-38 등 경기 내용 면에서도 메드베데프의 완승이었다. /연합뉴스

### 몽골·우즈베키스탄과 격돌 본선 진출권 획득 타진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예선 출전을 위해 결전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났다.

플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

대표팀은 17-23일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예선에 나서서 내년 1-2월 인도에서 예정된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본선 진출권 획득을 타진한다.

아시안컵 본선은 2023년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호주·뉴질랜드 공동개최)의 아시아지역 예선전을 겸한다. 이번 예선을 잘 치러 아시안컵 본선에 출전해 월드컵도 바라볼 수 있다.

이번 예선엔 25개국에 참가해 8개 조로 나눠 경쟁, 각 조 1위 팀만 아시안컵 본선 출

권을 가져간다.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에 개최국 인도, 2018년 대회 1-3위 팀인 일본, 호주, 중국까지 총 12개 팀이 아시안컵 본선에서 경쟁하게 된다.

이번 예선에서 한국은 몽골, 우즈베키스탄과 E조에 묶였다. 몽골과는 17일, 우즈베키스탄과는 23일 타슈켄트의 파흐타코르 스타디움에서 격돌한다.

우즈베키스탄은 FIFA 여자 랭킹 43위, 몽골은 125위로 한국(18위)보다 낮은 팀이다. 벨 감독은 소집 훈련을 시작하며 "상대가 약팀이든 강팀이든 마찬가지로 승리를 위해 집중해야 한다"며 "목표는 예선 두 경기에서 모두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7일부터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탐구질해 온 대표팀은 부상 변수를 겪기도 했다. 김혜리, 손화연(이상 인천 현대제철), 전은하(수원도시공사)가 부상으로 권하늘(보은상무), 서지연(경주 한수원), 문미라(수원도시공사)로 대체됐다. /연합뉴스

### 황의조 랑스전 허벅지 부위 통증으로 교체아웃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보르도의 블라디미르 페트코비치 감독(58)이 경기 도중 허벅지 부위 통증으로 교체된 황의조(보르도)에 대해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페트코비치 감독은 13일(한국시간) 보르도의 소식을 전하는 '지롱탱4에버(girondins4ever)'와 인터뷰에서 황의조에 대해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다발성 경련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12일 치러진 랑스와 2021-2022 정규리그 5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18분 허벅지 안쪽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1분 뒤 지미 브리앙과 교체됐다.

황의조는 앞서 후반 10분께에도 후방에서 날아온 패스를 잡으려고 전력 질주하는 과정에서 종아리에 경련을 일으키며 넘어진 뒤 일어났지만 결국 허벅지 안쪽 부위에 통증이 이

어지면서 교체아웃됐다.

지난 시즌 보르도의 최다 득점자로 맹활약한 황의조는 충분한 휴식이 없이 지난 7월 도쿄 올림픽에 참가한 후의 '와일드카드'로 뽑히면서 보르도의 이번 시즌 개막전에 결장했다.

벤투호의 9월 A매치에도 발탁된 황의조는 지난 7월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2차전에는 후반만 소화한 뒤 팀 훈련에 복귀해 랑스전에 선발로 출전하는 등 강행군을 이어왔다.

결국 누적된 피로 때문에 황의조는 랑스전 후반전에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에 잇달아 통증을 느끼며 교체아웃됐다.

페트코비치 감독은 "황의조가 많은 일정을 소화한 데 따른 피로 누적 때문에 통증이 왔다. 하지만 괜찮다"라고 큰 부상이 아님을 전했다. /연합뉴스